

##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 민<sup>†</sup>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 소 혜 장 웨 이  
Clark University 서정대학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이누미야와 김윤주(2006)가 제안하고 이누미야, 한민, 이주희, 이다인, 김소혜(2007)가 개발한 문화-자기관 척도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에서 평가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간 비교문화심리학에서 폭넓게 통용되던 Markus와 Kitayama(1991a)의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은 서양 vs 동양이라는 과도한 이분법적 전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일 문화권 내의 문화적 편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었다. 한, 중, 일 3국의 대학생 462명을 대상으로 이누미야 등(2007)이 개발한 자기관 척도 및 자기개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자기관의 구성요소인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점수와 비율에서 국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요약하자면, 자기관 요소들 중에서 한국은 주체성 자기가, 일본은 대상성 자기가, 중국은 자율성 자기가 각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동양 집단주의문화권으로 뭉뚱그려 논의되던 한국, 중국, 일본의 자기관이 질적으로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각국의 문화 차이를 연구하는 비교문화심리학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심리학 이론을 자국에 적용시키는 문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주요어 : 문화-자기관, 주체성-대상성-자율성, 국가 간 비교, 비교문화심리학

---

<sup>†</sup> 교신저자: 한 민, Dept. of Psychology, Clark University, 950 Main street, Worcester, MA, 01610, USA  
Tel: 508-425-1953, E-mail: rainmaster75@hanmail.net

문화적 자기관(self-construal) 개념<sup>1)</sup>은 문화적 다양성을 보이는 심리적 과정과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틀로서 비교문화심리학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Markus와 Kitayama(1991a)의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은 비교문화심리학에서 서양과 동양의 문화차이를 조명하는 많은 연구들에 적용되어 왔다.

이 이론은 Triandis(1988)가 세계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한 것에서 비롯된다. Triandis의 이론이 가치관에 주목하여 문화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심리학에 접목시켰다면, Markus와 Kitayama는 해당 문화 속의 구성원이 갖는 자기개념(self)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와 심리적 과정의 관계를 연구하는 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립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개인주의 문화의 개인은 독립적 자기관을 발달시키고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개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발달시켰다는 것이다(이누미야, 한민, 이주희, 이다인, 김소혜, 2007).

그러나 최근 들어 서양 개인주의 문화와 동양 집단주의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이 실제로 서양인과 동양인들의 자기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들을 사용한

그 동안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Markus와 Kitayama(1991a)의 이론이 예언하는 서양인과 동양인 간의 자기관 차이는 약하고 비일관적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양인은 아시아인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하다는 가정과 서양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은 미약하게나마 지지되었지만,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다는 가정과 아시아인은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다(Levine, Bresnahan, Park, Lapinski, Wittenbaum, Shearman, Lee, Chung, & Ohashi, 2003).

기존의 문화적 자기관 개념의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들은 서양과 동양의 자기존중감과 자기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비교한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자기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이며, 자기 자신의 능력, 가지에 관한 평가적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osenberg, 1965). 이러한 자기존중감은 각 문화의 특성에 따른 문화의 명제를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기존중감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a; Heine & Lehman, 1995).

예를 들면, 개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서양 문화권에서 자기(self)는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독립적 항상체로써의 기능을 한다. 자존, 자립, 자기주장, 자아실현 등이 바람직한 덕목이며, 개인들은 자율적 주체임을 강조받는다(Hsu, 1981). 따라서 서양문화권에서 개인의 자기는 독립적인 항상체로서 기능하기 위해 일관성을 추구하게 된다. 반면에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기는 내집단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것은 내집

1) 개인이 자기(self)를 인식하는 방식은 자기개념(self-concep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개념(self-concept)은 주로 사회적 맥락과는 별개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자기개념과는 별도로 자기관(self-constru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단과 결부된 여러 가지 평가에 관련하여 자기의 다양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Devos, 1973).

이러한 전제에서 서양과 동양, 즉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의 자기존중감을 비교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결과는 자기존중감은 개인주의 문화일수록 높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e.g. Kwan, Rond, & Singelis, 1997; Baumeister, Tice, & Hutton, 1989). Baumeister, Tice, 그리고 Hutton(1989)은 서구에서 이루어진 자기존중감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와 상관없이 자기존중감 평균 또는 중앙치가 이론적 중간점보다 상위에 편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Heine, Kitayama, Lehman, Takata, Ide, Leung, 그리고 Masmoto(2001)의 연구에서도 캐나다 백인의 자기존중감 점수의 분포는 매우 높은 쪽으로 편포되었다. 캐나다 응답자 중 자기존중감이 낮다고 분류되는 사람들마저도 이론적인 중간점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자기존중감 점수가 이론적 중간 점수를 중심으로 정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을 포함한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들이 보고된다. 예를 들어 한국 대학생( $M = 5.27, SD = .97$ )들은 일본 대학생( $M = 4.29, SD = .98$ )보다 훨씬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영, 이누미야, 김재신, 최일호, 2005).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 환상에 대한 지각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조근호(2002), 조근호와 명정완(2001), 정욱과 한규석(2005) 등의 긍정적 환상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한국은 동일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일본과 유사

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의 강한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Heine와 Lehman(1997)은 일본인과 캐나다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본 대학생에게는 비현실적 비관성이 발견된 반면 캐나다 대학생에게선 비현실적 낙관성이 발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의 가정에 부합하는 경향성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도 출되었다. 한국 대학생들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일본과는 다르게 캐나다 대학생과 같은 비현실적 낙관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통제감은 캐나다 학생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이누미야,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따라서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며 동일하게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는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기존의 문화 분류와 거기에 기반을 둔 문화적 자기 이론의 전제에 적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 자체, 그중에서도 특히 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특히 각 문화권에서의 상호협조적 자기가 의미하는 바는 해당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ross와 Bacon 및 Morris(2000)는 서유럽 및 북미 일부 지역 사람들이 갖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소속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형성한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을 포함하는 관계지향적 상호협조적 자기관(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으로서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양 집단

주의 문화에서의 상호협조적 자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누미야(2004)는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양쪽 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며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이 자기개념에 포함되어 있지만, 양국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 임하는 태도에는 대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한국인의 자기관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가, 일본인의 자기관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누미야와 김윤주(2006)는 동일한 문화권으로 생각되어 온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자신들에 대해 갖는 긍정적 환상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자기개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다. 일본인들이 기존의 비교문화심리학적 가정대로 낮은 수준의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서양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양국 사람들의 자기개념, 즉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

이누미야, 한민, 이주희, 이다인, 김소혜(2007)는 이러한 자기개념의 차이가 결국은 사회적 맥락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가정에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을 제안하였다.

먼저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이론은 먼저 사

회적 맥락에 대해 설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기준으로 자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나는 자기를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Markus와 Kitayama(1991a)의 상호독립적 자기의 속성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본 이론에서는 이를 자율성 자기(autonomous self)라고 명명하였다.

한편 자기를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즉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경우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경우이다. 이누미야(2004)는 전자의 자기개념을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 후자의 자기개념을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라고 명명한 바 있다.

즉,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이란 개인이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과 사회 내에서 개인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개인이 갖는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정도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및 사회 내 개인들의 관계의 다양성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갖는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비율은 그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성격은 개념 타당화를 위한 상관분석의 결과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누미야 등(2007)은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개념적으로 타당화를 위해 Markus와 Kitayama의 문화적 자기관 개념에 근거한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관 척

표 1.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와 관련 척도 간의 상관관계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자기관 <sup>a</sup>	자기관 <sup>a</sup>	존중감 <sup>a</sup>	친화형 <sup>b</sup>	순박형 <sup>b</sup>	복종형 <sup>b</sup>	고립형 <sup>b</sup>	냉담형 <sup>b</sup>	실리형 <sup>b</sup>	지배형 <sup>b</sup>	사교형 <sup>b</sup>
주체성 자기	.54***	.10	.39***	.24**	-.28***	-.41***	-.27**	-.07	.21**	.61***	.36***
대상성 자기	-.40***	.30***	-.44***	-.11	.45***	.63***	.46***	.10	-.21**	-.68***	-.46***
자율성 자기	.63***	-.02	.32***	-.10	-.18*	-.25**	-.03	.08	.40***	.37***	-.03

\*  $p < .05$ , \*\*  $p < .01$ , \*\*\*  $p < .001$ . <sup>a</sup>N = 227, <sup>b</sup>N = 156 (이누미야 외, 2007)

도(高田, 大本, 清家, 1996)와 자기존중감 및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정남운, 2005)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

표 1에 따르면, 주체성 자기는 상호독립적 자기( $r=.54, p<.001$ )와 정적상관을 보이지만 상호협조적 자기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대상성 자기는 상호독립적 자기( $r=-.40, p<.001$ )와는 부적상관, 상호협조적 자기와는 정적상관( $r=.30, p<.001$ )을 보인다. 자율성 자기는 주체성 자기와 같이 상호독립적 자기( $r=.63, p<.001$ )와는 정적상관을 보이지만 상호협조적 자기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과 관계에서는 주체성 자기( $r=.39, p<.001$ )와 자율성 자기( $r=.32, p<.001$ )는 정적상관을, 대상성 자기는 부적상관( $r=-.44, p<.001$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는 대상성 자기의 성격은 드러나지만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의 성격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데, 이어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체성 자기와 자율성 자기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주체성 자기는 친화형( $r=.24, p<.001$ ), 지배형

( $r=.61, p<.001$ ), 사교형( $r=.36,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자율성 자기는 대인관계에서의 적극성을 의미하는 친화형 및 사교형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상성 자기는 순박형( $r=.45, p<.001$ )과 복종형( $r=.63, p<.001$ ), 고립형( $r=.46, p<.001$ )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지배형( $r=-.68, p<.001$ ) 및 사교형( $r=-.46, p<.001$ )과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소극성을 반영한다. 즉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는 사회적 맥락에서 지각하는 개인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 자기관을 구성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은 세계에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문화와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존재한다는 Triandis(1988)의 가정을 공유하며, 그러한 문화권에 따라 자기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Markus와 Kitayama(1991a)의 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이론은 세계의 문화권을 개인/집단주의 문화로 구분한 Triandis의 이분법적 분류에서 나아가 자기관의 구성요소를 주체성-대상성-자율성으로 구분함으로써 자기관의

양상이 같은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 내에서도 더욱 세분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Markus와 Kitayama의 이론이 자기관의 유형을 문화권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같은 문화권 내에서 자기관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예, 집단주의 문화권 내의 한국과 일본/ 개인주의 문화권 내의 미국과 유럽국가)까지는 기술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본 이론은 자기관이 주체성-대상성-자율성이라는 세 영역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자기관의 패턴에 주목하는 새로운 자기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동일 문화권 내의 상이한 심리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이누미야 외, 2007).

이어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작업으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념의 내용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 뒷받침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한국의 자료만으로는 이 척도가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실제로 반영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의 개념적, 실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가정된 차이가 실제 각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 심리학적인 시각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문화적 자기관 이론에 의해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개국 대학생들의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정도와 비율을 살펴보고, 자기존중감 및 자기에 대한 긍정적 환상(비현실적 낙관성)

을 측정하여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기술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한, 중, 일 세 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 고려대학교 학생 201명(남=88, 여=110)과 일본 와세다대학교 학생 133명(남=56, 여=76), 중국 중경대학교 학생 128명(남=45, 여=79)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세 집단의 평균 연령은 한국 20.85세( $SD=2.87$ ), 중국 20.07세( $SD=1.77$ ), 일본 20.94세( $SD=3.56$ )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도구들은 한국어로 제작된 척도를 영어로 번역한 뒤, 해당 국가의 원어민이 자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된 척도는 한국어와 자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원어민으로 의미상의 오류 등을 검토 및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

2007년 이누미야 요시유키 등이 개발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체성, 대상성 및 자율성에 관련 문항은 각각 6개씩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이 참여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

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주체성(6문항) .78, 대상성 .76, 자율성 .72로 나타났다.

###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88이었다.

### 비현실적 낙관성

비현실적 낙관성은 Heine와 Lehman(1995)의 비현실적 낙관성 측정 질문지를 이누미야 요시유키 등(1999)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Heine와 Lehman의 연구를 따르면 비현실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 측정, 다른 하나는 절대적 측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측정법을 택했다. 즉, 연구참가자 본인이 어떤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과 연구참가자와 같은 학교인 타인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각각 절대적인 퍼센티지를 적게 하는 방법이다.

척도는 본인 경험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 문항과 타인 경험에 대한 각각 20개씩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인이 해당 문항에 묘사된 사건을 직접 경험할 가능성에서 타인이 경험할 가능성을 뺀 점수가 비현실적 낙관성 점수로 계산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본인에 대한 문항이 .90, 타인에 대한 문항이 .94였다.

## 결 과

###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국가별 차이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면서 상호협조적 자기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의 자기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자기관의 요소인 주체성( $F=51.419, p<.001$ ), 대상성( $F=59.344, p<.001$ ), 자율성( $F=10.396, p<.001$ )에서 국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주체성의 경우에는 한국( $M=4.81, SD=.89$ )과 중국( $M=4.63, SD=.94$ ) 대학생들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일본( $M=3.82, SD=1.00$ ) 대학생들의 점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대상성의 경우에는 일본이 평균 4.30( $SD=1.02$ )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 $M=3.68, SD=.84$ ) 이 중간 정도, 중국( $M=3.06, SD=.93$ ) 이 가장 낮았으며, 국가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성은 중국( $M=5.12, SD=.83$ )과 한국( $M=4.95, SD=.97$ )의 점수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본( $M=4.60, SD=1.00$ )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

표 2. 자기관 요소의 국가별 차이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F
사례수	201	128	133	
주체성	4.81a (.89)	4.63a (.94)	3.82b (1.00)	51.419***
대상성	3.68a (.84)	3.06c (.93)	4.30b (1.02)	59.344***
자율성	4.95a (.97)	5.12a (.83)	4.60b (1.00)	10.396***

\*\*\*  $p<.001$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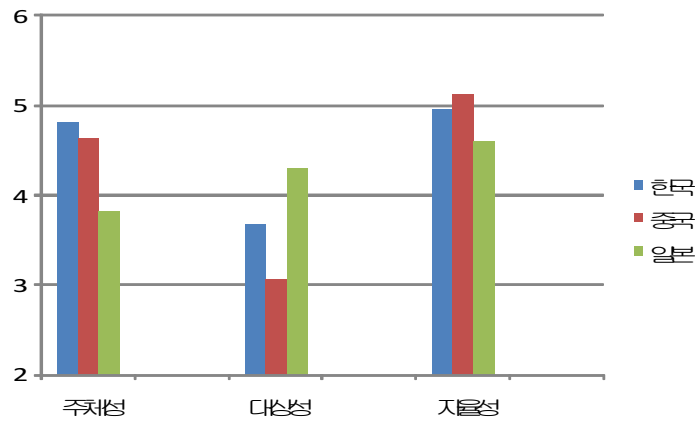


그림 1.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국가 간 차이

타내었다(그림 1).

다음은 국가별로 자기관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은 자기관이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3요소로 되어 있고, 각 요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기관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또한 한 국가에 있어서 자기관 요소의 비율은 그 나라의 문화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자기관 요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들 세 나라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각 나라별로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이 가장 우세한 이들의 비

율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적과 우세한 자기관 요소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chi^2=70.058$ ,  $p<001$ )(표 3, 그림 2).

한국과 중국은 자율성이 우세한 이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체성, 대상성으로 같은 패턴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이 중국보다 주체성이 우세한 이들이 많고 중국이 한국보다 자율성이 우세한 이들이 많았다.

한편 일본은 자율성이 우세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주체성이 우세한 이들의 비율도 한

표 3.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우세자의 국가 간 교차분석

	한국 (%)	중국 (%)	일본 (%)	$\chi^2$
주체성	72 (35.8)	33 (25.8)	21 (15.8)	70.058***
대상성	15 (7.5)	5 (3.9)	45 (33.8)	
자율성	114 (56.7)	90 (70.3)	67 (50.4)	
계	201 (100)	128 (100)	133 (1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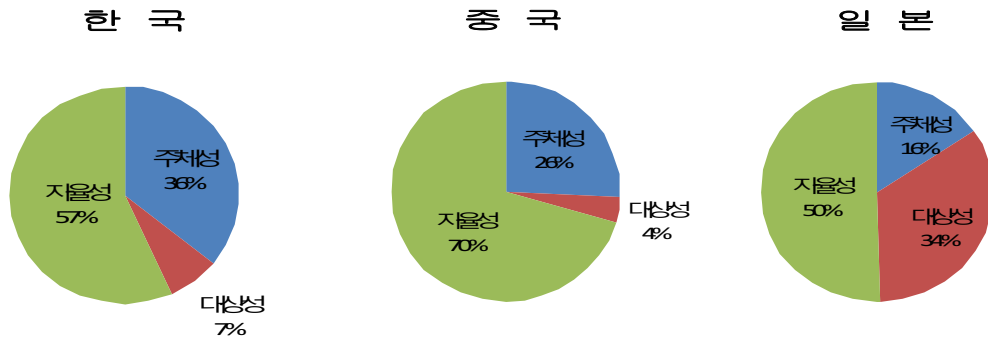


그림 2.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우세자의 국가 간 비율

국과 중국에 비해 가장 낮았다. 반면 대상성이 우세한 이들의 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각 나라의 구체적인 자기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주체성-대상성-자율성 비율을 세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국가별로 보다 구체적인 자기관 요소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에 따르면 한국은 5집단(44.3%)>2집단(28.9%)>6집단(12.4%)>1집단(7.0%)>3집단(4.0%)>4집단(3.5%)의 순서로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중국은 5집단(60.2%)>2집단(25.8%)>6집단(10.2%)

>4집단(3.1%)>3집단(.8%)>1집단(.0%)의 순서를, 일본은 6집단(30.8%)>4집단(24.8%)>5집단(19.5%)>2집단(12.8%)>3집단(9.0%)>1집단(3.0%)의 순서로 사례가 분포하였다.

표 3과 4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 중, 일 3국의 자기관에서 모두 자율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드러진 점으로는 자기관 요소들 중에서 한국은 주체성의 비율이, 중국은 자율성의 비율이, 일본은 대상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은 자율성과 주체성의 비율에서

표 4.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우세자의 국가 간 교차분석

	한국 (%)	중국 (%)	일본 (%)	$\chi^2$
1. 주체성>대상성>자율성	14 (7.0)	0 (.0)	4 (3.0)	122.577***
2. 주체성>자율성>대상성	58 (28.9)	33 (25.8)	17 (12.8)	
3. 대상성>주체성>자율성	8 (4.0)	1 (.8)	12 (9.0)	
4. 대상성>자율성>주체성	7 (3.5)	4 (3.1)	33 (24.8)	
5. 자율성>주체성>대상성	89 (44.3)	77 (60.2)	26 (19.5)	
6. 자율성>대상성>주체성	25 (12.4)	13 (10.2)	41 (30.8)	
계	201 (100)	128 (100)	133 (100)	

\*\*\*  $p < .001$

유사하였으나 대상성의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 대상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국에서는 대상성의 비율이 낮았다. 주체성이 우세한 1, 2집단과 자율성이 우세한 5, 6집단 중, 대상성이 높은 집단들(1집단, 6집단)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일본은 대상성의 비율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자율성이 주체성에 비해 우세한 특징을 보였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자기개념과의 관계

우선 국가에 따른 자기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개념으로는 자기존중감과 비현실적 낙관성을 선택하였다.

표 5에 따르면, 자기존중감( $F=45.993, p<.001$ ) 및 비현실적 낙관성( $F=19.440, p<.001$ )에서 국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자기존중감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과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현실적 낙관성은 국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이  $8.61(SD=12.03)$ 로 가장 높고 중국이  $5.16(SD=11.17)$ 로 그 뒤였으며, 일본은  $.13(SD=13.11)$ 으로 가장 낮았다. 비현실적 낙관성의 국가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자기관 요소, 즉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자기개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국가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체성과 대상성(부적상관), 주체성과 자기존중감(정적상관), 대상성과 자율성(상관 발견안됨), 대상성과 자기존중감(부적상관), 자율성과 비현실적 낙관성(상관 발견안됨), 자기존중감과 비현실적 낙관성(정적상관)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체성과 자율성, 주체성과 비현실적 낙관성, 대상성과 비현실적 낙관성, 자율성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는 한, 중, 일 3국에서 각각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주체성과 자율성의 관계에서는 한국( $r=.347, p<.001$ )과 중국( $r=.324, p<.001$ )에서는 정적상관이 발견되었으나 일본( $r=.061, n.s.$ )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주체성과 비현실적 낙관성에서는 한국( $r=.114, n.s.$ )과 중국( $r=.138, n.s.$ )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

표 5. 자기존중감 및 비현실적 낙관성의 국가별 차이

구 분	한국	일본	중국	평균 (표준편차)	F
사례수	201	133	127		
자기존중감	5.11a (1.08)	4.06b (.98)	4.83a (.83)	4.73 (1.08)	45.993
비현실적 낙관성	8.61a (12.03)	.13b (13.11)	5.16c (11.17)	5.21 (12.61)	19.440

\*\*\*  $p<.001$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임.

표 6. 주체성, 자율성, 대상성과 자기존중감, 비현실적 낙관성의 관계

		1	2	3	4	5
1. 주체성	한국					
	중국	1.000				
	일본					
2. 대상성	한국	-.325***				
	중국	-.413***	1.000			
	일본	-.452***				
3. 자율성	한국	.347***	-.001			
	중국	.324***	-.004	1.000		
	일본	.061	-.028			
4. 자기존중감	한국	.295***	-.295***	.209**		
	중국	.289***	-.348***	.206*	1.000	
	일본	.361***	-.457***	.049		
5. 비현실적 낙관성	한국	.114	-.031	.096	.228***	
	중국	.138	-.243***	.112	.266**	1.000
	일본	.338***	-.234**	.009	.434***	

\*  $p < .05$ , \*\*  $p < .01$ , \*\*\*  $p < .001$

면에 일본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정적상관 ( $r = .338, p < .001$ )이 발견되었다.

대상성과 비현실적 낙관성의 관계에서는 중국( $r = -.243, p < .001$ )과 일본( $r = -.234, p < .001$ )에서는 부적상관이 나타난 데 비해서 한국( $r = -.031, n.s.$ )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율성과 자기존중감의 관계에서는 한국( $r = .209, p < .01$ )과 중국( $r = .206, p < .05$ )의 경우에는 정적상관이 발견된 반면에 일본( $r = .049, n.s.$ )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Markus와 Kitayama(1991a)에 의해 제안된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은 오랜 시간 동안 문화와 자기관에 대한 유일한 설명틀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와 그보다 훨씬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와 같은 이분법적 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누미야(2004), 이누미야와 동료들(2007)에 의해 구체화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은 개인의 자기가 개인이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른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이라는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개인이 태어나 살아가는 문화는 개인의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구성된 개인의 자기는 다양한 양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Markus와 Kitayama(1991a)의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이 서양과 동양이라는 포괄적 대상에 대한 제한적 설명만을 제공할 수 있는 데 반해,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은 서양과 동양으로 구분되는 거시문화권 내의 문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의 범문화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첫 문화비교 연구로 한, 중, 일 3국을 선택한 이유는 본 이론이 Markus와 Kitayama(1991a)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 이론, 특히 상호협조적 자기 개념의 세분화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에 따르면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고려되어 온 한국과 중국, 일본사람들은 유사한 자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한국과 일본에서 도출된 결과로는 Markus와 Kitayama의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함께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고려되어 오던 한국과 중국, 일본사람들의 자기관의 다양한 양상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 함께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존중감과 자기에 대한 긍정적 환상(비현실적 낙관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자기존중감과 긍정적 환상은 자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문화연구에서 서양과 동양의 비교를 위한 종속변인으로

많이 수용되어 온 개념이다.

자기존중감과 긍정적 환상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들 중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결과들은 양국을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만큼 두드러져 결국 그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자기개념에 기인한다는 이누미야(2004), 이누미야와 김운주(2006)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였고, 거기에서부터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이 파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자기존중감 및 긍정적 환상과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와의 관계를 조명한다면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성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국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주체성은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일본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대상성은 일본>한국>중국의 순서로 명확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율성은 주체성과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한국, 중국>일본)(표 2 참조).

자기관 요소들의 나라별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나라에서 우세한 자기관 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세 나라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과 중국은 자율성이 우세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체성, 대상성으로 같은 패턴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이 중국보다 주체성이 우세한 이들이 많고 중국이 한국보다 자율성이 우세한 이들이 많았다. 일본 역시 자율성이 우세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주체성이 우세한 이들의 비율도 한국과 중국에 비해 가장 낮았다. 반면 대상성이 우세한 이들의 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았다(표 3, 4 참조). 이러한 결과 중,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결과는 이누미야와 김윤주(2006)가 예상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와 일치한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대상성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체성과 자율성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체성은 한국이 중국보다, 자율성은 중국이 한국보다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자기관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들(자기존중감, 비현실적 낙관성)과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우선,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자기존중감과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에 비해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비현실적 낙관성은 한국이 가장 높고, 중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다(표 5 참조).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과 자기존중감, 비현실적 낙관성의 관계에서도 나라별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이 중, 주체성과 자율성의 관계서 특기할 만한 점이 발견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주체성과 자율성의 관계가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일본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주체성과 대상성의 관계는 3국이 모두 부적상관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의 자기관 개념이 한국 및 중국인들의 그것과 명백히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비율과 그들이 자기존중감 등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일본인들이 자기를 파악하는 방식 자체가 한국과 중국인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과 자기존중감과 관계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중, 일 3개국이 모두 주체성과 자기존중감은 정적상관, 대상성과 자기존중감은 부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자율성과 자기존중감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일본인들의 자기관이 한국이나 중국인들과는 다른 성격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과 비현실적 낙관성의 관계에서는 세 나라의 양상이 모두 달랐다. 한국은 주체성, 대상성 어느 것도 비현실적 낙관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은 대상성과의 부적상관만이 나타났으며, 일본은 주체성과는 정적상관, 대상성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자율성과 비현실적 낙관성의 관계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현실적 낙관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일 만큼 긍정적인 평가로 이론 구성 단계에서는 주체성과는 정적상관, 대상성과는 부적상관이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본 대학생들에게서만 예상된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이 가장 높은 한국의 경우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 어느 것도 비현실적 낙관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이 자기관 외의 또 다른 심리적 변인과 관련된 것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보통 비현실적 낙관성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주로 보고되는 현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나라인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에게서 비현실적 낙관성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중국 대학생들보다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의 문화구분에서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으로 알려졌던 것들은 대부분 일본에 국한된 것이며,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 내에서도 문화의 편차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동북아시아 3국은 각각 한국은 주체성 자기, 중국은 자율성 자기, 일본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한국은 또한 가장 높은 비현실적 낙관성을 보였으며 자기존중감과 일본에 비해 높았다(중국과는 통계적 차이 없음). 대상성 자기가 가장 우세한 일본은 자기존중감과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3국 중 모두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고, 자율성 자기가 우세한 중국은 일본에 비해 높은 자기존중감과 중간 정도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보였다.

자기관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대상성의 정도이다. 예상대로 일본이 가장 높은 대상성을 보였고,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중국이 대상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중국 역시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으로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대상성 자기를 가지고 있으리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주의 문화권과의 비교가 없어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중국의 대상성 자기의 정도는 주체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의 정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주체성 자기가 우세하지만 대상성 자기 역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 중, 일

3개국에서 모두 자율성 자기가 전체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우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들이 주로 연구에 참여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나, 개인주의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도 독립적 자기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그 동안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었던 한국, 중국, 일본의 자기관이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 중국, 일본의 자기관이 자신과 타인을 보는 시각에서 서로 다르며, 그러한 자기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변인들과의 관계 역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문화비교 연구들은 일본과 미국, 중국과 캐나다, 한국과 미국 등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두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행됨으로써 은연중에 집단주의 문화권 내의 나라들이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음을 가정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일 문화권 내의 편차를 증명함으로써 기존 비교문화심리학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에서 파생된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이 새로운 대안적 문화적 자기관 이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후, 미국 등의 개인주의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나 개인주의 문화권 내에서의 자기관의 다양성을 증명하는 연구 등의 후속연구들이 수행된다면,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과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의 차이점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며, 다양한 세계의 문화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심

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표본이 각국의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 각국의 구세대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및 자기관 구성요소와 기타 변인들과의 관계를 여러 연령대에 걸쳐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는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수가 나라 당 100여명 남짓으로 적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수십 배가 넘는 방대한 지역에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특정 지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의 결과가 중국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 및 표본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개인주의 문화권과의 비교가 없었다는 점이다. 동북아 3국의 자료와 더불어 미국이나 캐나다 등 개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국가의 자료가 검토되었다면,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의 구체적 성격 및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구분하는 중요한 자기관 요소에 대한 이해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주의 문화권에 대한 이해는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집단주의 문화가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 나라에서만도 편차를 보이는 것처럼, 단순히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서구문화 역시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 문화권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유럽 문화권, 그리고 러시아 및 동유럽 제국들이 포함된 동유럽 문화권 등 한, 중, 일 3국만큼이나 문화적 차이가 예상되는 보다 많은 문화권으로 나눠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들 문화권에 대한 비교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의 편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라는 개념이 필요했듯이 이들 개인주의 문화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 세계에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동, 남미 문화권 등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으로 접근이 어려운 문화들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의 확립과 이에 근거한 문화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각 나라 및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는 일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정남운 (2005).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83-598.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한일 비교 성격론. 인본연구, 11, 101-124.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민, 이주희, 이다인,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7-34
- 정욱,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99-216.
- 조근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근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高田利 武(다카타 토시타케)·大本美千恵(오모토 미치에)·清家美紀(세이케 미키) (1996). 相互獨立的-相互協調的自己觀尺度(改訂版) の作成. 奈良大學紀要, 24, 157-173.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Cognitive processes during deliberate self-presentation: How self-presenters alter and misinterpret the behavior of their interaction partn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1), 59-78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91-808.
- Devos, G. A. (1973). *Socialization for achievement*.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l Press.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2(6), 1268-1283.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eu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su, F. L. K. (1981). *Americans and Chinese: Passage to differences*.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Hawaii.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evine, T. R., Bresnahan, M. J., Park, H. S., Lapinski, M. K., Wittenbaum, G. M., Shearman, S. M., Lee, S. Y., Chung, D., Ohashi, R. (2003). Self-Construal Scales Lack



- Valid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2), 210-252.
- Markus, H.,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social psychology, in G. K. Verma and C. Bagley(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pp.60-95). London: Macmillan.

1차원고접수 : 2009. 3. 18.

수정원고접수 : 2009. 4. 29.

최종게재결정 : 2009. 5. 14.

## **The Application of Culture bounded Self-construal Model: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Min Han**                      **Yoshiyuki Inumiya**                      **Sohye Kim**                      **Wei Zhang**  
Clark University                      Seojeong College                      Korea University

The most powerful model of self-construal, namely independent self and interdependent self seems useful only when it is related to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nd is somehow insufficient to illustrate the psychological diversity among countries sharing the same culture. Researchers of current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model of self-construal (SOA model) to find out a better frame than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model. The current study was designed to distinguish the subtle differences of self-construal among 3 countries within same collectivistic culture, which were hardly explained by the dichotomous model. The data of 462 participants was used for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nd Chinese had similar scores in Subjectivity (S) and were both higher than Japanese students, while in the respect of Objectivity (O), Japanese students' score was highest, followed by Korean and Chinese students. The pattern related to Autonomy (A) was similar to that of subjectivity. I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three factors of SOA, different patterns occurred among these countries. For Korean, subjectivity and autonom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hile objectivi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Japanes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ity and self-esteem as well 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objectivity and self-esteem.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self-esteem on Japanese samples. As to Chinese, the patterns of correlation were similar with those of Korean participants. In the future, studies on the comparison among western countries are required to testify the SOA model one step further.

*Key words* : self-construal, subjective, objective, autonomous, comparison between countries